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3호 [루게 제23275호] 주제 99 (2010)년 11월 19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당초급선동원군의 영예를 간직한 서창청년단 8명, 1세대 1세대 김학철은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 선전과 다양하고 참신한 경제선동으로 소대원들이 혁명적열의를 발휘하여 해마다 적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설비조립합기업소 제1작업반 전순복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여 집단안에 당정책적사관철의 정신이 차넘치게 하고 선동사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중요대선동원의 공사기업을 앞당기도록 종업원들을 고무하였다. 평강군 북계협동농장 제4작업반 로복남은 농장원들의 감성과 심리, 정황에 맞게 선동활동을 능숙하게 하여 그들이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야군 새동농장 농산제2작업반 김순희는 영농시기마다 화신식경제선동과 인신작업으로 집단이 농사일을 간지럽게 하고 부림소반과 거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하였다. 개천시 봉화협동농장 제2작업반 김경환, 문천시 고암협동농장 제2작업반 심명철, 선강군 성룡협동농장 파수분조 김영화, 동진군 동창협동농장 제2

작업반 최영욱도 대중의 교양자, 선동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농장원들속에서 《우리 선동원》으로 불리우고있다. 당과 수령의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교양자료들과 당정책선전자료들을 수없이 만들어놓고 선동사업을 참신하게 하고있는 함흥시 용남구역평정사업소 선동원 김명춘도 대중의 사랑을 받고있다. 만경대영예군인만년필공작 리선희는 선동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여 작업원들이 생산에서 비상한 애국적열의와 창조정신을 발휘하도록 하고있으며 평양고등교육도사리공작점지작업반 최용숙은 힘있는 선동사업과 뜨거운 인성미로 작업반을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으로 꾸리는데 기여하고있다. 순안고려약공장 리영희는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 종업원들을 약품생산에 적극 추동함으로써 당초급선동원군의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선동원들은 대중의 정신풀을 최대한도로 발휘시키기 위한 선진선동활동을 더욱 과감히 벌여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할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 라오스통신이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 선중앙방송총국 65화에 즈음하여 중앙방송위원회 종업원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신 소식과 청년중앙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11일 라오스통신이 보도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중앙방송총국 65화에 즈음하여 중앙방송위원회 종업원들의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렬한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본사기자

《김일성전집》 제90권 출판



《신년사》, 《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수확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어야 한다》 등의 로작들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양상을 일으키며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갈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인민경제의 선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현시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한 기본과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들에서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이 부문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로작들에는 탄광들에서 기계화, 전기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수직갱을 많이 건설하는 등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한 과업들과 우리 나라에 풍부한 수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수력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화력발전능력도 높여나갈데 대한 문제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철도운수부문에서 당의 집중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중요선상에 물동을 제때에 실어나를데 대한 문제, 금속공업에서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경제 선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로작들에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평안북도의 경제과업에 대하여》, 《비료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 알곡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기초화학제품과 비료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등의 로작들에 천명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들에서 농촌경리부문에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 목표를 점령하며 경공업부문에서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빛나게 관철하여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었다. 경제하는 수령님께서는 화학공업들을 만우리로 돌려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를 제때에 대주며 기초화학제품을 높이고 경공업공업장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들도 세워주시었다. 로작 《인민적인 미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광범사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에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화를 적극 장려하며 인민적인 미술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문제,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옮겨 계승하며 주제에서 당창건 65화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승리의 대추적으로 빛내일 궁지없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은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다같이 손잡고 싸워나가자》, 《일본(대이니찌신봉) 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위하여》를

비롯한 로작들에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방침을 천명하시고 그 수행을 위한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할수 있는 길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그를 구현하여 하노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시었다. 로작들에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리의를 철저하여 놓고 서로 뜻과 힘을 합치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이 명시되어있다. 또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며 국제혁명력량과의 연대성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전략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김일성전집》 제90권에 수록된 로작들은 실현투쟁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파시던 혁명과 건설의 고귀한 지침으로서 당창건 65화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승리의 대추적으로 빛내일 궁지없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은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다같이 손잡고 싸워나가자》, 《일본(대이니찌신봉) 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위하여》를

조선중앙통신

견결한 사회주의수호정신을 지니고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자

수산리계급교양관 준공식 진행

[강서 1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수산리계급교양관이 새로 건설되어 준공하였다. 총서판과 변경화실을 비롯하여 6개의 교양실로 된 계급교양관을 지닌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이 강행한 야수적탄행을 폭로하는 50여장의 사진과 10여점의 유물 등이 전시되어있다. 야외에는 애국자들이 집단학살된 곳인 밤향교와 애국자묘를 비롯한 8개의 교양장소가 꾸려졌다. 계급교양관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의 혁명적의, 계급의식을 더욱 높여주고 그들을 견결한 혁명투사들로 준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되었다. 준공식이 18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원만록 계급교양관지도국 국장, 남포시당, 행정경제기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건설자들, 근로자들, 피살자가족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수산리계급교양관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강양도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준공사에 이어 강서구역도시건설사업소 직장장 김철, 수산리계급교양관 판장

최정숙이 토론하였다. 건설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선군의 기치를 추켜들고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역사적시기에 수산리계급교양관 준공식을 가지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계급교양관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에게 온정어린 감사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지남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이 수산리에서 강행한 야수적탄행을 폭로한 50여장의 사진과 유물들을 무지하게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장사, 종업원들은 장의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계급교양관을 잘 관리운영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온하고 계급적원수들의 야수적탄행을 독특히 인식시키고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제하는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의 선군명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동원력을 힘있게 발휘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원수들이 공격해오면 영웅적의 명을 걸고 본래있게 싸워 싸움을 무지하게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장사, 종업원들은 장의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계급교양관을 잘 관리운영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온하고 계급적원수들의 야수적탄행을 독특히 인식시키고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서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 나무심기 진행

은 나라 인민의 뜨거운 지성에 의해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이 더욱 푸르려 설레이고있다. 17일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이 이곳에 갖가지 나무를 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성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를 보다 훌륭히 꾸릴 일념으로 지난 기간 많은 나무들을 심어온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순천시, 의주, 파산, 천마, 박천, 황주, 름산, 수안, 봉산군 등의 농근맹일군들, 농근맹원들은 이번 15일에 5 800여그루의 나무와 2만여개의 꽃뿌리를 마련해가지고갔다. 경양시 만경대, 사동, 려포, 락량, 삼성, 통성, 형제산, 순안구역, 강동군에서는 이같은 나무, 잣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10여종에 300여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수목원을 찾았다. 참가자들속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헌없는 그리움을 간직하고 수백그루의 나무를 안고 온 황주군 통천리, 고연리 농근맹일군들과 집트락에서 가까운 나무모들을 가지고온 파산군 석동리 농근맹원들도

있었다. 그들모두는 수목원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며 울헤농사를 빛나게 결속할 결의를 다지면서 하나의 잔뿌리로 상할세라 정성다해 나무들을 심었다. 나무심기에 참가한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은 당대표자 회견을 높이 받들고 경제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명도따라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넘칠듯한 빛나게 실현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은정어린 량강도습장화를 받아안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끝없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머니다.》 지난 5월 해산신발공장을 찾으신 경제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목진 숄신발을 보아주시고 량강도습장화라고 친히 그 이름을 지어주셨을 뿐 아니라 습장화용 공장의 특집지표로 정하고 더 많이 생산

하여 추운 지방에서 사는 인민들 누구나 신을수 있게 하도록 하시었다. 경제하는 장군님의 현저말씀을 높이 받들고 해산신발공장에서 습장화작업반을 새로 꾸려 습장화생산 전문화하였으며 신발을 개조하고 그 모양새를 날려낼, 나이브, 직업용 특성에 맞게 세련시키며 방수 처리까지 한 질 좋은 습장화가 있어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량강도습장화가 대량생산 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인민들의 겨울신발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제하는 장군님의 친어머니사랑을 가슴에 새겨안고 량강도습장화를 품어들어 생산하였다. 앞송이와 바닷, 뒤속을 비롯한 전방모양새가 활동에 편리하게 생긴 량강도습장화는 백두산지구의 한겨울에도 발이 시리지 않고 눈, 비에 젖지 않게 방수처리가 잘되어 있어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량강도습장화가 대량생산 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좋게!

년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계속 전진

평안북도식료일용품공업관리국 아래 지방공업공장들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조선로동당대표 조직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있다. 도안의 지방공업공장의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모두가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을 담당할 긍지와 책임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위훈장훈의 영예를 떨치게 하였다. 시, 군식료일용품공업관리국에서는 지방공업공장에서 생산조직사업을 짜고치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비롯하여 세외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게 하였다. 특히 인민소비품의 가치수와 품질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소비품들을 많이 생산해내도록 하였다. 도안의 지방공업공장의 인민소비품생산자들은 올해에 생산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하려는 불타는 열의와 각오를 다지고있다. 창성군안의 지방공업공장에서는 내우비비를 남김없이 탐구동원한 인민소비품의 가치수와 품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연간계획을 두달이상 앞당겨 끝내었다. 신의주시의 수지일용품공장은 편지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기술개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소비품의 가치수를 높이고 그 질을 높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내었다. 년간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도식료일용품공업관리국아래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지방공업혁명의 불길같이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총동원력을 발휘하고있다. 특파기자 김기두

평안북도식료일용품공업관리국 아래 지방공업공장들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조선로동당대표 조직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있다. 도안의 지방공업공장의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모두가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을 담당할 긍지와 책임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위훈장훈의 영예를 떨치게 하였다. 시, 군식료일용품공업관리국에서는 지방공업공장에서 생산조직사업을 짜고치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비롯하여 세외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게 하였다. 특히 인민소비품의 가치수와 품질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소비품들을 많이 생산해내도록 하였다. 도안의 지방공업공장의 인민소비품생산자들은 올해에 생산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하려는 불타는 열의와 각오를 다지고있다. 창성군안의 지방공업공장에서는 내우비비를 남김없이 탐구동원한 인민소비품의 가치수와 품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소비품의 가치수를 높이고 그 질을 높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내었다. 년간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도식료일용품공업관리국아래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지방공업혁명의 불길같이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총동원력을 발휘하고있다. 특파기자 김기두



대미약의 열쇠는 일군들이 쥐고 있다

3월 5일 청년광산 지배인 겸 인운동부의 사업성과를 놓고

조국의 최북단에 우리 인민이 이처럼 바라던 행복의 리상촌이 펼쳐졌다. 얼마전 3월 5일청년광산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기서 사회주의 선경을 통과하는 공산주의 선경이라고, 심판집도 아닌 백만점이라고 저를 높이 치하하시면서 지배인 겸인운동부를 우리 시대 행정경제일군의 전형으로 내세워 주셨다. 리상이 현실로 펼쳐진 기적적인 화곡을 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무엇보다 먼저 지배인의 수고를 깊이 헤아려 주신 여기에는 우리 당의 구상을 실현 하는데서 가장 책임적인 위치에 서있는 사람들, 가장 력사적인 중임을 맡고있는 사람들이 다름아닌 우리 일군들이라는 하늘같은 믿음에 빛받치고있다. 일군들이 맡고있는 우리 조국의 귀중한

한 부분, 그 하나하나의 전진들에서 생산과 건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의 모든 분야를 어떻게 심각히 번저가고 어떤 결실로 이어졌는가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른 측면에서 그날 회의에서 토론된 문제가 어떻게 심각히 번저가고 어떤 결실로 이어졌는가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낫은 설비를 들어내고 새 설비들을 통해 들여오려는것은 사실상 광물생산을 완전히 멈춘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나마 한두달도 아니고 여섯달이라는 오랜 시간을 바쳐야 했으니 생산을 책임진 지배인의 심리적이고충진을 얼마나 컸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겸인운지배인을 찾아와 생산을 멈춘다나 그게 무슨 말인가, 어쩌지고 그런 모험을 하는가고 물어대었다. 그때 지배인이 하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아 말한다. 《1년은 풍청거리고 10년은 굶자는 건가?》

리상이 높은 일군이 되라!

백만점!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하신것처럼 3월 5일청년광산은 그야말로 안락으로 백만점이다. 대규모의 로첸재물장이며 대형원추형 파쇄기, 대형마광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이 들어있는 멋있는 생산장, 산허리를 감돌아 굽이굽이 뻗어간 광석수송을 위한 수리터 물관선도로와 벨트라인의이 배경은 불수록 장관이다. 즐비하게 늘어선 살림집들을 보노라면 수천마리의 학들이 깃을 펼친듯 같고 먹고 쓰고 사는 격정을 전혀 모르는 이곳 사람들의 행복을 내친 웃음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광부도시에 꽃피난 천지개혁을 놓고 사람들이 찬탄을 금치 못할 때마따라 겸인운지배인은 말한다.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현실에 그대로 구현했을뿐입니다.》

자기 맡은 단위의 운영과 미션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각으로 결정되며 그 열도에 따라 진짜 주인과 가짜 주인, 비약하는 일군과 제자리걸음을 하는 일군이 갈라진다. 겸인운지배인의 경영활동에서의 승산은 이렇게 작전에서부터 이미 결정지어진다. 경제작전에서 남보다 한수만 앞서도 그 결과에서는 엄청난 실리를 얻게 되지만 남보다 한치만 내다보지 못하여도 순간에 밀려나고만다는것을 겸인운동부는 한시도 잊지 않고있다. 물론 겸인운동부의 실력에 대해 말할 때 지배인이 직접 찬양하고 도입한 기술 혁신안이 직접 실전이나 되며 그가 받은 발전경도 작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주요한 땅이 늘어나 금속주변에 지장을 받을 때 기술자들이 먼저 생각 못했던 문제를 의한 새척방법을 기발하게 착상한 사람들 지배인이었고 자체일군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설비를 들여왔다고 자랑을 늘어놓을 때에도 순간에 기술적제한성을 깨달고보고 즉시 조치를 안을 내놓은 사람도 다름아닌 그였다. 그러나 행정경제일군의 실력은 기술 혁신의 선구자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당정책을 환히 꿰고 똑똑한 지식과 최첨단 기술에 기초하여 자기 식의 독특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워나가는 작전가적이며, 혁명적혁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명활하게 대처할 줄 아는 활용가적이며, 모든 일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계산과 면밀한 타산밑에 전개할 줄 아는 수학적이며, 이것이 충성한 일군, 능숙한 작전가도 불리우며 겸인운지배인을 통하여 찾아보게 되는 우리 시대 행정경제일군의 진척실적이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끝장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말라!

겸인운동부가 하여금 광산의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가장 과학적인 리상을 세우고 두뇌전을 벌일수 있게 한 고귀한 자침이었다. 오늘날 일군의 실력은 자기를 알고 세계를 아는 실력이다. 자기를 떠나서는 아무리 발전된 세계적적인이라고 할지라도 일군의 가치도 없고 세계를 모르고서는 아무리 자기것에 정통했다고 하여도 우물만한 개구리가 될수밖에 없다. 자기를 안다는것은 자기 부문에 제시된 당정책의 진수를 잘 알뿐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거나 스쳐지나 있을것도 평평한 밑천으로 볼 줄 알고 활용할 줄 아는 안목과 능력을 지닌다는것이다. 겸인운지배인이 경영전략을 세우는데서 인재들을 기본으로 보고 물색하던 보배들을 찾아 현실에서 보석처럼 빛을 내게 하고있는것도, 수십년간 쓸모없이 버려진 일군중의 훔과 돌도 평평한 량의 건설자재로 전환시킨것도, 능란한 외교로 변경부역을 통한 많은 리익을 얻고있는것도 바로 그러한 실력이다. 나라들사이의 국제경쟁, 경제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는 현대에서 일군들이 세계를 모르다니 아무리 앞채를 들고도 딸출러 뒤러다니고 하여도 잠을 자는 사람이나 다름없게 된다. 겸인운동부는 제위공급업계의 세계적 추세와 량면부문의 발전동향, 해당 나라들의 경제전략과 경제발전방향, 세계시장에서의 가격변동 지어 국제정세까지 연구하는 높은 수준의 안목과 함께 세계적 수준에 단번에 올라서려는 자신만만한 야심과 탐구력을 가지고있다. 설사 명성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대에 반드시 시대의 최첨단을 돌파해야 하며 후손들에게 위한 든든한 밑천과 도약대를 마련해놓아야 한다는것이 광산의 진척주인구실을 하려는 겸인운동부의 남다른 책임감이고 비상한 실력의 바탕으로 되고있다. 지금 많은 일군들과 온 나라 인민들은 이곳 백만점리상촌을 끝없이 꾸려나가고 있지만 겸인운지배인은 벌써 그 백만점들을 새 세대로 출발점으로 삼고 남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최화한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당정책을 환히 꿰고 똑똑한 지식과 최첨단 기술에 기초하여 자기 식의 독특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워나가는 작전가적이며, 혁명적혁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명활하게 대처할 줄 아는 활용가적이며, 모든 일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계산과 면밀한 타산밑에 전개할 줄 아는 수학적이며, 이것이 충성한 일군, 능숙한 작전가도 불리우며 겸인운지배인을 통하여 찾아보게 되는 우리 시대 행정경제일군의 진척실적이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끝장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말라!

당정책을 환히 꿰고 똑똑한 지식과 최첨단 기술에 기초하여 자기 식의 독특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워나가는 작전가적이며, 혁명적혁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명활하게 대처할 줄 아는 활용가적이며, 모든 일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계산과 면밀한 타산밑에 전개할 줄 아는 수학적이며, 이것이 충성한 일군, 능숙한 작전가도 불리우며 겸인운지배인을 통하여 찾아보게 되는 우리 시대 행정경제일군의 진척실적이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끝장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말라!

당정책을 환히 꿰고 똑똑한 지식과 최첨단 기술에 기초하여 자기 식의 독특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워나가는 작전가적이며, 혁명적혁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명활하게 대처할 줄 아는 활용가적이며, 모든 일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계산과 면밀한 타산밑에 전개할 줄 아는 수학적이며, 이것이 충성한 일군, 능숙한 작전가도 불리우며 겸인운지배인을 통하여 찾아보게 되는 우리 시대 행정경제일군의 진척실적이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끝장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말라!

끝장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말라!

겸인운동부의 사업성과를 놓고... 끝장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말라!

겸인운동부의 사업성과를 놓고... 끝장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말라!

겸인운동부의 사업성과를 놓고... 끝장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말라!

겸인운동부의 사업성과를 놓고... 끝장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말라!

겸인운동부의 사업성과를 놓고... 끝장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말라!

인민의 감사를 받으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이려면 누구나 인민들로부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일군의 자격을 논할 때 가장 엄격한 심판관은 인민이다. 민심의 보충만큼 정확하고 위력한것은 없으며 인민의 보증을 받는 일군들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제일로 크게 믿으신다. 겸인운동부는 언제 한번 대중을 향해 요란한 구호를 외치지 않지만 그의 일군들은 품오와 순결무구한 인간됨은 몇백배의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창조와 위훈으로 무한히 분발시킨다. 중일전쟁은 지배인 겸인운을 따른다기 보다 인간 겸인운을 더 존경하였었다. 인간미는 당일군에게서는 물론 행정경제일군에게 있어서도 생생과 파다. 지식들의 혼사문제까지도 지배인과 무를을 마주하고 의논할 정도로 겸인운동부는 광산사람들에게 있어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되어있고 철부지 이렁것까지도 지배인아버지도 따를만큼 인정에 무른 사나이로 누구나의 마음속에 정답게 자리잡고있다. 겸인운지배인이 모든 일을 보면 광산을 제 살림처럼 여기고 광산사람들을 제 자식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며 그것을 위해 자신을 강리마쳐가는 그의 인정을 다 보인다. 그러나 지배인이 그루를 벽하 말하였다. 《부속품은 이미 도착했소.》 그는 깜짝 놀랐다. 직장장도 모르는것을 지배인은 어떻게 다 알고있는가? 후에 알고보니 지배인은 이미전에 모든 설비들의 기술준비상태, 가동상태에 대해 손꼽은 장악하고 사전대책까지 세우고 있었던것이다. 이런 일은 그후 기술편자를 맡아보는 부서에서도 있었고 자체보장을 맡은 부서에서도 있었으며 살림집건설장에서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이려면 누구나 인민들로부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일군의 자격을 논할 때 가장 엄격한 심판관은 인민이다. 민심의 보충만큼 정확하고 위력한것은 없으며 인민의 보증을 받는 일군들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제일로 크게 믿으신다. 겸인운동부는 언제 한번 대중을 향해 요란한 구호를 외치지 않지만 그의 일군들은 품오와 순결무구한 인간됨은 몇백배의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창조와 위훈으로 무한히 분발시킨다. 중일전쟁은 지배인 겸인운을 따른다기 보다 인간 겸인운을 더 존경하였었다. 인간미는 당일군에게서는 물론 행정경제일군에게 있어서도 생생과 파다. 지식들의 혼사문제까지도 지배인과 무를을 마주하고 의논할 정도로 겸인운동부는 광산사람들에게 있어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되어있고 철부지 이렁것까지도 지배인아버지도 따를만큼 인정에 무른 사나이로 누구나의 마음속에 정답게 자리잡고있다. 겸인운지배인이 모든 일을 보면 광산을 제 살림처럼 여기고 광산사람들을 제 자식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며 그것을 위해 자신을 강리마쳐가는 그의 인정을 다 보인다. 그러나 지배인이 그루를 벽하 말하였다. 《부속품은 이미 도착했소.》 그는 깜짝 놀랐다. 직장장도 모르는것을 지배인은 어떻게 다 알고있는가? 후에 알고보니 지배인은 이미전에 모든 설비들의 기술준비상태, 가동상태에 대해 손꼽은 장악하고 사전대책까지 세우고 있었던것이다. 이런 일은 그후 기술편자를 맡아보는 부서에서도 있었고 자체보장을 맡은 부서에서도 있었으며 살림집건설장에서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이려면 누구나 인민들로부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일군의 자격을 논할 때 가장 엄격한 심판관은 인민이다. 민심의 보충만큼 정확하고 위력한것은 없으며 인민의 보증을 받는 일군들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제일로 크게 믿으신다. 겸인운동부는 언제 한번 대중을 향해 요란한 구호를 외치지 않지만 그의 일군들은 품오와 순결무구한 인간됨은 몇백배의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창조와 위훈으로 무한히 분발시킨다. 중일전쟁은 지배인 겸인운을 따른다기 보다 인간 겸인운을 더 존경하였었다. 인간미는 당일군에게서는 물론 행정경제일군에게 있어서도 생생과 파다. 지식들의 혼사문제까지도 지배인과 무를을 마주하고 의논할 정도로 겸인운동부는 광산사람들에게 있어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되어있고 철부지 이렁것까지도 지배인아버지도 따를만큼 인정에 무른 사나이로 누구나의 마음속에 정답게 자리잡고있다. 겸인운지배인이 모든 일을 보면 광산을 제 살림처럼 여기고 광산사람들을 제 자식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며 그것을 위해 자신을 강리마쳐가는 그의 인정을 다 보인다. 그러나 지배인이 그루를 벽하 말하였다. 《부속품은 이미 도착했소.》 그는 깜짝 놀랐다. 직장장도 모르는것을 지배인은 어떻게 다 알고있는가? 후에 알고보니 지배인은 이미전에 모든 설비들의 기술준비상태, 가동상태에 대해 손꼽은 장악하고 사전대책까지 세우고 있었던것이다. 이런 일은 그후 기술편자를 맡아보는 부서에서도 있었고 자체보장을 맡은 부서에서도 있었으며 살림집건설장에서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이려면 누구나 인민들로부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일군의 자격을 논할 때 가장 엄격한 심판관은 인민이다. 민심의 보충만큼 정확하고 위력한것은 없으며 인민의 보증을 받는 일군들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제일로 크게 믿으신다. 겸인운동부는 언제 한번 대중을 향해 요란한 구호를 외치지 않지만 그의 일군들은 품오와 순결무구한 인간됨은 몇백배의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창조와 위훈으로 무한히 분발시킨다. 중일전쟁은 지배인 겸인운을 따른다기 보다 인간 겸인운을 더 존경하였었다. 인간미는 당일군에게서는 물론 행정경제일군에게 있어서도 생생과 파다. 지식들의 혼사문제까지도 지배인과 무를을 마주하고 의논할 정도로 겸인운동부는 광산사람들에게 있어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되어있고 철부지 이렁것까지도 지배인아버지도 따를만큼 인정에 무른 사나이로 누구나의 마음속에 정답게 자리잡고있다. 겸인운지배인이 모든 일을 보면 광산을 제 살림처럼 여기고 광산사람들을 제 자식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며 그것을 위해 자신을 강리마쳐가는 그의 인정을 다 보인다. 그러나 지배인이 그루를 벽하 말하였다. 《부속품은 이미 도착했소.》 그는 깜짝 놀랐다. 직장장도 모르는것을 지배인은 어떻게 다 알고있는가? 후에 알고보니 지배인은 이미전에 모든 설비들의 기술준비상태, 가동상태에 대해 손꼽은 장악하고 사전대책까지 세우고 있었던것이다. 이런 일은 그후 기술편자를 맡아보는 부서에서도 있었고 자체보장을 맡은 부서에서도 있었으며 살림집건설장에서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이려면 누구나 인민들로부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일군의 자격을 논할 때 가장 엄격한 심판관은 인민이다. 민심의 보충만큼 정확하고 위력한것은 없으며 인민의 보증을 받는 일군들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제일로 크게 믿으신다. 겸인운동부는 언제 한번 대중을 향해 요란한 구호를 외치지 하지만 그의 일군들은 품오와 순결무구한 인간됨은 몇백배의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창조와 위훈으로 무한히 분발시킨다. 중일전쟁은 지배인 겸인운을 따른다기 보다 인간 겸인운을 더 존경하였었다. 인간미는 당일군에게서는 물론 행정경제일군에게 있어서도 생생과 파다. 지식들의 혼사문제까지도 지배인과 무를을 마주하고 의논할 정도로 겸인운동부는 광산사람들에게 있어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되어있고 철부지 이렁것까지도 지배인아버지도 따를만큼 인정에 무른 사나이로 누구나의 마음속에 정답게 자리잡고있다. 겸인운지배인이 모든 일을 보면 광산을 제 살림처럼 여기고 광산사람들을 제 자식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며 그것을 위해 자신을 강리마쳐가는 그의 인정을 다 보인다. 그러나 지배인이 그루를 벽하 말하였다. 《부속품은 이미 도착했소.》 그는 깜짝 놀랐다. 직장장도 모르는것을 지배인은 어떻게 다 알고있는가? 후에 알고보니 지배인은 이미전에 모든 설비들의 기술준비상태, 가동상태에 대해 손꼽은 장악하고 사전대책까지 세우고 있었던것이다. 이런 일은 그후 기술편자를 맡아보는 부서에서도 있었고 자체보장을 맡은 부서에서도 있었으며 살림집건설장에서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이려면 누구나 인민들로부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일군의 자격을 논할 때 가장 엄격한 심판관은 인민이다. 민심의 보충만큼 정확하고 위력한것은 없으며 인민의 보증을 받는 일군들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제일로 크게 믿으신다. 겸인운동부는 언제 한번 대중을 향해 요란한 구호를 외치지 하지만 그의 일군들은 품오와 순결무구한 인간됨은 몇백배의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창조와 위훈으로 무한히 분발시킨다. 중일전쟁은 지배인 겸인운을 따른다기 보다 인간 겸인운을 더 존경하였었다. 인간미는 당일군에게서는 물론 행정경제일군에게 있어서도 생생과 파다. 지식들의 혼사문제까지도 지배인과 무를을 마주하고 의논할 정도로 겸인운동부는 광산사람들에게 있어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되어있고 철부지 이렁것까지도 지배인아버지도 따를만큼 인정에 무른 사나이로 누구나의 마음속에 정답게 자리잡고있다. 겸인운지배인이 모든 일을 보면 광산을 제 살림처럼 여기고 광산사람들을 제 자식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며 그것을 위해 자신을 강리마쳐가는 그의 인정을 다 보인다. 그러나 지배인이 그루를 벽하 말하였다. 《부속품은 이미 도착했소.》 그는 깜짝 놀랐다. 직장장도 모르는것을 지배인은 어떻게 다 알고있는가? 후에 알고보니 지배인은 이미전에 모든 설비들의 기술준비상태, 가동상태에 대해 손꼽은 장악하고 사전대책까지 세우고 있었던것이다. 이런 일은 그후 기술편자를 맡아보는 부서에서도 있었고 자체보장을 맡은 부서에서도 있었으며 살림집건설장에서도 있었다.

교원학자들이 현실에서 긴절한 문제를 풀어나가며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자를 가하여 인민생활에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올해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최첨단돌파의 전초병이 되어

신의주농업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

다. 모두가 성공의 기쁨을 금치 못하고있는 때에 뜻밖에도 연구당사자들이 프로그램작업을 다시 할것을 제기해왔던것이다.
이런것을 생각은 깊었다. 프로그램작업에 얼마만큼 흥미를 들었는가를 잘 알고있는 이들은 이렇듯이였다.

의 프로그램작업을 위해 수백리길을 수없이 다녀오고 많은 일군들을 만나 자료연구를 진행하였다. 며칠밤을 뜬눈으로 꼬박 앉으면서도 누구도 물려지지 않았다.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최첨단수준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경여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하나의 마음을 안고 교원, 연구사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작성에 또다시 달려들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끝에 현실적의과가 있는 최첨단수준의 프로그램인 농업정보관리시스템을 완성하였다.

의 불멸의 업적이 깃든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지대적특성에 맞는 새로운 다수확물종류성과 과학적인 시비체계, 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려 올해 알곡생산량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축산학부의 교원집단은 농목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새로운 집집승에방향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 대학은 수임명에 달하는 학위학석사수강자와 수많은 대학생과학탐구수상자들을 배출하였으며 남새학강좌와 축산학강좌를 비롯하여 학위학석사수강과가 더욱 늘어났다.

혁명적량만 넘치는 대중체육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관, 기업소들에게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체육시간을 정하고 모든 종업원들이 아침체조와 건강체조, 걷기와 달리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종업원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 공장안에 혁명적량만과 건투적기백이 차넘치도록 하는데서 대중체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자각하고 큰 힘을 넣어온것이다.
공장에서는 대중체육활동을 적극 벌리는것을 단순한 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종업원들의 정신력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왔다.

조직되고 휴식일 등에도 작업반별체육경기가 정상적으로 벌어져 언제나 혁명적열정과량만으로 들끓었다.
강한 작업과제가 제기될 때에도 체육활동은 중단되지 않았고 작업반별생생경기와 체육경기가 결합되어 상가작업반, 선반작업반들을 비롯한 여러 작업반에서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일게 되였다.

교정에 차넘치는 탐구의 열풍

평양화학공업전문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들은 교수사업과 과학연구사업, 학습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밀집히 통일시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얼마전 평양화학공업전문학교를 찾았을 때였다. 학교를 돌아본 우리는 열면목수들이 울려나오는 어느 한 방에서 들을 멈추었다. 분석화학강좌실이였다. 호기심에 끌려 조종히 방안에 들어서니 강좌장리금수동무를 비롯한 교원들이 도면을 펼쳐보고 연구인가 진지하게 토론하고있었다.

과학연구활동을 활발히 벌려

함흥경공업대학에서

합흥경공업대학 교원들이 당장진 65세를 승려자의 대추진으로 벌내인 기세드높이 과학연구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박사 정영호동무는 발명권과 과학기술성과특수증을 비롯하여 10여건에 달하는 과학기술성과를 소유하고 있는 실력있는 교육자이다.
신선호의 한 식료공장에 내려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전기를 절약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발명권과 과학기술성과를 비롯하여 그가 도인의 경공업부문공정, 기업소들은 물론 전국 의 여러 단위를에서 달성한 과학연구성과는 참으로 크다.
교원 리원영동무는 맛있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감자식품을 만들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한것을 인정받아 국가공용연구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는 정영호, 전진영동무와의 긴밀한 연계로 감자기름기생산공정설계를 새롭게 착상한데 이 기를루기장차와 절단기를 비롯하여 생산공정공구기

에 필요한 설비와 장치들도 훌륭하게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공장들의 감자식품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물리, 화학 등 다양한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정칙체연구를 지원하여 맡아나선 교원 신경남동무는 불타는 열정을 기울여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필요되는 접착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 그는 교육학적이거나 참모로써 《일용학제》도 훌륭하게 집필하였다.
방직에서 무늬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장치의 CNC화를 실현한 남금철동무를 비롯하여 모든 교원들이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많이 달성하였다. 대학에서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를 많이 이룩하고있는것은 학생 리정화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일군들이 과학연구사업을 틀어쥐고 방법론있게 잘 짜고든데 있다.
본사기자 리은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쁨공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쁨공전을 찾아 18일 토마스 루제 도이칠란드조선의 원단 부위원장인행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환경생태 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세계사주화위업과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제 16차 아시아경기대회 소식

우리 나라 선수들이 16일과 17일에 진행된 제 16차 아시아경기대회 사격과 럭키경기에서 4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훌륭한 성과로 선조조선의 영예를 빛내일 일념으로 우리 선수들은 주체적인 사격조법을 능숙히 활용하여 남자단체 10m이동목표혼합사격경기에서 1위를 하였다.
박명원선수는 평시에 편마발 높은 사격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10m이동목표혼합사격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우리 선수들
우 리 선 수 들 사격, 럭키경기에서 4개의 금메달 쟁취
회합으로써 남자개인 10m이동목표혼합사격경기에서 384점을 기록하고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남자력기 7kg급경기에서 정과 인내력에 의거하여 단번진 5등, 빠른 격발로 너저개인 25m 권총사격경기에서 785.9의 점수를 받고 1등을 하였다.
남자력기 7kg급경기에서

제 3차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전시회 개막

제 3차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전시회에는 당의 과학기술 중시, 최첨단과학기술을 받들고 진군의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과학탐구활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920여건의 정보기술제품들이 출품되었다.
개막식이 17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있었다.
김용진 교육위원회 위원장, 리자방 국가과학기술위

명승지 종합개발 지도국에서

남조선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었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서는 18일 남조선통일부에 관광개발문제와 관련한 북남당국간 실무회담을 다시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었다.
통지문은 남측이 관광개발회담을 개최할데 대한 우리측의 3차례나 되는 통지문에 대해 《검토》요, 《차후통지》요 하고 50일이나 끌다가 이제와서 남측부동산물수, 동결조치를 무너없이 시비하며 회담전제 조건으로 내거는 무성의한 통지문을 보내는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남측의 태도는 언론에도 평하고있는바와 같이 사실상 회담을 거부하는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
통지문은 우리의 립장은 남측이 요구하는 부동산물수, 동결조치문제도 다 협의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남측은 더이상 부담한 구실에 매달리지 말고 관광개발회담에 하루빨리 나와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11월 25일에 열리는 북남적십자회담에 해당 당국관계자들이 나와 관광개발회담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할것을 제기하였다.

우리 나라 립

우리 나라 립이 제 16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 준결승 경기에 진출하였다.
18일 우리 립과 일본팀사이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진 경기는 0:0으로 비진 가운데 끝났다. 우리 나라 립은 20일 준결승경기를 하게 된다.
조선과 로므니아 두 나라 정부사이의 문화, 교육, 과학, 체육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므니아정부사이의 문화, 교육, 과학, 체육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이 18일 평양에서 조인되었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전영진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부문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이, 상대측에서 이안구 리비우 오비디우 주조 로므니아 립시리데타수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출발
제 16차 아시아경기대회에 가는 우리 나라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인 박명원체육사관 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인 18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장산 체육

아시아나 대학총장연단에 참가하였던 김일성 종합대학 대표단 귀국

중국의 광둥에서 진행된 아시아나 대학총장연단에 참가하였던 김일성종합대학 대표단 18일 귀국하였다.
평양에서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리철호와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문화합사 리학해가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수리아를 방문하였던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대표단 귀국
수리아를 방문하였던 김성봉 농근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단장으로서 하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대표단이 16일 귀국하였다.
평양에서 홍정철 농근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미국대조선정책전문가대표단 귀국
셀류리금 상급연구사 모튼 아브라모프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대조선정책전문가대표단이 18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총련세대대 일군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김일성 제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세대대 일군대표단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경여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총련세대대 일군대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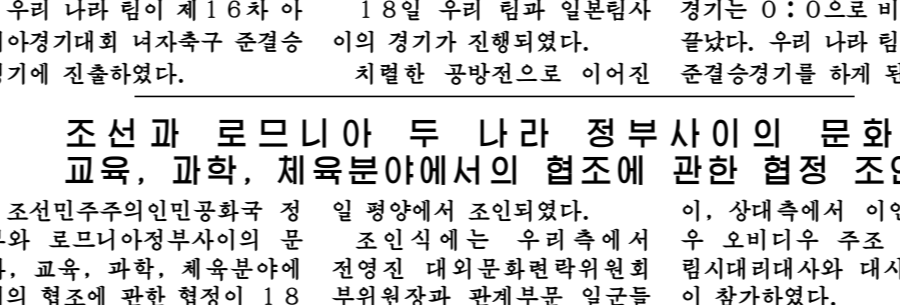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김일성 제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세대대 일군대표단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경여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총련세대대 일군대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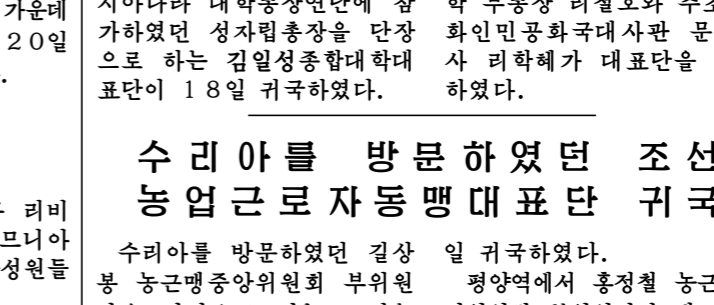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김일성 제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세대대 일군대표단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경여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김일성 제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세대대 일군대표단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경여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김일성 제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세대대 일군대표단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경여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김일성 제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세대대 일군대표단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경여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범민련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 불멸의 업적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지금 북남사이에는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우리의 동포애적인 아량과 적극적인 조치에 고무된 해내의 온 겨례는 우리 민족끼리여담에 기초하여 각계각층의 단합을 실현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헌명하게 영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적혁신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정권과 신앙의 차이, 제도과 지역의 차이를 초월하여 해내의 온 겨례의 화합을 도모하는 위대한 통일운동조직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결성되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었다.

지난 해가 80년대말~90년대초에 이르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 앞에는 엄중한 시련과 난관이 조성되고 있었다. 당시 국제무대에서는 인류의 자주위임을 말할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견치 않았던 사태들이 연이어 벌어지고있었다. 이를 기회로 내외분렬주의세력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부르짖으며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통일외국세력을 와해할수하기 위한 책동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었다. 격변하는 내외의 정치생태는 온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주통일운동의 거대한 열풍을 일으키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이러한 사태의 추이를 명철하게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화합과 자주통일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양에서 북과 남의 지도급인사들도 북남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협상회의에 남조선의 여야당총재들과 여러 재야인사들을 초청하시면서 그들이 건설적인 통일방안을 가지고온다면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최신훈화하게 협의할것이라는 대해 천명하시였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서라면 최스러운 파기도 불문에 부치시고 누가누가든 포섭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외국적 뜻이 어찌 이 제언은 온 겨례의 가슴가슴을 한없는 격정으로 뽐게 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동포애와 민족대단결사상에 고무된 남조선의 많은 민주인들이 평양을 방문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주체78(1989)년 3월 30일 민족화해협력의대응 및 남북협력에 관한 합의서(남해협)가 체결되게 되었고, 이 합의서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있다.

사실을 헤치고 찾아온 통일시장을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인력과 위인적품성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끝없는 매혹과 거대한 통일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북과 남, 해외를 포괄하는 범민족적인 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시고 그 준비를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이리하여 주체78(1989)년 7월 평양에서 진행된 조국통일촉진대회에서는 력사적인 범민족대회를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그 이듬해 8월 15일에 판문점에서 개최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북과 남, 해외는 범민족대회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마침내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참가하는 범민족대회를 성대히 개최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내의 우리 겨례가 모여 범민족대회를 성과적으로 연 것이 그리도 기쁘시어 주체79(1990)년 8월 18일 범민족대회 참가자들을 몸소 만나주시였다. 이날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대표들이 거둔 성과를 축하해주시고 민족대단결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세월이 흐르다 한들 우리 어이 잊을수 있겠는가. 그날 대표들앞에서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남조선의 자본가들끼라도 단결하려고 한다고,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은 누구나 다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하며 합되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화하신 말씀은 오늘도 겨례의 귀전을 울리며 매아리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를 대표들은 진정한 수령님이시라며 7천만 겨례모두를 하나로 아우라지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시임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주체79(1990)년 11월 20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며 북과 남, 해외의 공동의사를 대변하는 애국애족적인 통일운동조직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결성되게 되었다.

범민련이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후 력사의 모진 시련속에서도 자기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통일외국의 한걸음 한걸음 걸어온수 있는것은 바다와 같은 포용력으로 온 겨례를 하나로 아우라지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을 그대로 체현하신 정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민족대단합의 가치를 높이 추켜들고 거족적인 자주통일열풍을 일으키며 범민련이 걸어온 지난 20년간의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우리 겨례 누구나 가슴속에 새겨안는 신념이 있다. 그것은 조국통일의 앞길을 시련과 난관이 겹쳐오며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빛내어가시는 현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때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바로 그것이다.

해내의 온 겨례는 민족대단결위업을 한생을 바쳐 쌓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천히 가고 만천하에 거두어들이며 정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의 령도아래 6.15 통일시대의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이 땅에서 수령님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던 통일된 강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준

조국통일을 먼저 생각하시며

은 겨례가 어버이수령님 을 뜻하며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으로 하여 피눈물의 바다에 잠겨있던 주체83(1994)년 8월 5일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당시 관계부문의 일군들은 이리 때 어떻게 범민족대회와 같은 행사를 벌려놓겠는가 하면서 8.15 범민족대회를 그만두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로해하신 정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진행되는 8.15 범민족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범민족대회인것대 회회창가자들이 평양시민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유언을 받들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할것을 다짐하는 통일실천결의회를 진행하는것으로써 제5차 범민족대회의 막을 성대히 열었다.

피눈물속에서도 중단없이 진행된 제5차 범민족대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령대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성취된다는 제5차 범민족 7천만겨례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온 강토에 통일열기를 더욱 북돋아준 력사적 계기로 되였다.

그리하여 그해 8월 13일 평양에서는 겨례

의 통일외국을 구비하여서도 중단없이 진행된 제5차 범민족대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령대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성취된다는 제5차 범민족 7천만겨례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온 강토에 통일열기를 더욱 북돋아준 력사적 계기로 되였다.

목적 보낸 신 변지

어느해 평양을 방문한 한 재미교포노류기자는 정애하는 장군님께 결혼하시었다면 하는 요청을 드렸다.

그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가지 중대사들이 많이 제기되어 그대 만나실 시간적 여유를 내지 못하시였다. 정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바쁘신 속에서 그렇게 보내는 편지를 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편지에서 잠을 부족 없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과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생전에 녀사와 같은 저명한 녀류분류기자를 가까이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고 하시면 말씀을 잊지 않았고요 녀사가 조국과 민족, 통일을 위하여 활약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시였다.

이러한 장군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고 녀사도 그 후 얼마를 기다리지 못하고 허서있던 그는 정애하는 장군님에게 장군님이사야말로 전체 조선민족이 영연히 받고자 해야 할 민족의 자랑, 조국통일의 구성이서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정애하는 장군님께서도 그후 바쁘신 속에서도 한 해 교포노류기자의 소원을 헤아리시고 몸소 친필편지까지 보내주신 사실이 그에게 절경을 받은대 못지 않은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고 녀사도 그 후 얼마를 기다리지 못하고 허서있던 그는 정애하는 장군님에게 장군님이사야말로 전체 조선민족이 영연히 받고자 해야 할 민족의 자랑, 조국통일의 구성이서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결성 20돌기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20돌기념 북측본부회의가 18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을 철저하게 추진하시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앞당기려는것이 우리 민족의 천지개벽의 정사입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북측본부회의

년 20년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연이은 충격적인 사건들로 소란한 남조선정국

간인불법사찰사건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찰들의 퇴로 사건 등을 둘러싸고 소란하게 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지난 7월 《국회의원보승선거》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퇴직인원관리이 민간인불법사찰을 강행한 사건이 드러난데 이어 여기에 영포로(경북 영일, 포항출신 공직자모임)가 깊숙이 개입되어있다는것이 폭로되면서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정국은 남조선정국의 일부인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일삼고 있다.

전대 미문의 날강도적인 범죄행위

일제가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울사5조약》을 남조한 때로부터 105년이 되었다.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횡포무도한 침략공로 《울사5조약》을 남조한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력사에 유례없는 가혹한 식민지과포로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인민에게 해어물수 있는 고통과 방해를 돌렸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부당한 판결을 비난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11월 18일 논평을 발표하여 공산청탁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정도를 규정한대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뜻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차별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내세우시고 그것을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교훈은 온 겨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반제투쟁강화는 세계평화보장의 근본요구

세계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념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세계 여러 지역들이 핵사병과 같은 전쟁위협 속에 빠져들어 참사를 일으키고있다. 범죄적인 「반테로전」의 간판밑에서 주권 국가들을 함부로 침공하거나 로골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다.

이로 하여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문제 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현재 민간인학살문제, 피난민문제, 인종차별문제 등이 국제적인 논의거리로 되고있다. 유엔과 해당 지역 기구들에서 정책을 토론했고있지만 해결은 잘되지 않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새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도 커다란 지체를 받고있다. 침략과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있는 나라들의 경제형편은 더 말할필 없다.

이러한 세계적인 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다름없어 있다. 그것은 한사바쁘 세계에 평화적완정을 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가 실현될수 없다.》

평화에 가는 지름길은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데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의 총포소리 속에서 생겨났고 그 확대속에서 더욱 쓰여져왔다. 이 세상에 평화를 바라는 제국주의란 없다. 승양이가 풀을 먹으며 살수 없듯이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을 떠나서 생존할수 없다.

새 세계에 들어와 일어난 전쟁들과 분쟁들의 막뒤에는 제국주의가 있다. 그들은 존경받을 만가동시키고 침략과 전쟁행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며 발전하려는 인류의 저항과 념원에 정면

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강권과 패권주의정책, 침략과 전쟁행동으로 하여 세계도처에서 평화와 안정이 엄중히 파괴, 위협당하고있다. 현실은 반제투쟁을 떠나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절대로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행동에 반기를 들고 그것을 폭로규탄하는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전쟁을 한순간에 도발해지니 그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는 사전에 풀을 들여 진행한다. 그들은 침략하려는 나라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전쟁행습을 벌리면서 무력증강행동을 강행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의 이러한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그를 적극 폭로규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인권보장》, 《테로방지》, 《대량살상무기개발금지》 등의 구절을 들고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전인류적인 보편적가치를 가지는 문제들을 구실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건간섭행위를 일삼으면서 사태를 전쟁으로 몰아가고있다.

사실 인권과 안보분야에서의 범죄행위, 대량살상무기개발 및 전과 등에 우선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대상은 제국주의자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초보적인 생존권도 보장해주지 않을뿐이 아니라 총기류소지를 합법화하여 사람들을 무시무시한 공포속에 살게 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국가들이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대량살상무기들을 보유하고있을뿐아니라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며 저들의 추종국가들에 전파시키면서 세계정세를 긴장시키고 돈벌이를 하는것도 제국주의세력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가치관》에 숨겨진 침략적성격을 똑바로 보고 파국만 반대시킬공세로 맞서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내건간섭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 나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기 인민의 이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실인권과 안보분야에서의 범죄행위, 대량살상무기개발 및 전과 등에 우선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대상은 제국주의자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초보적인 생존권도 보장해주지 않을뿐이 아니라 총기류소지를 합법화하여 사람들을 무시무시한 공포속에 살게 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국가들이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대량살상무기들을 보유하고있을뿐아니라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며 저들의 추종국가들에 전파시키면서 세계정세를 긴장시키고 돈벌이를 하는것도 제국주의세력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가치관》에 숨겨진 침략적성격을 똑바로 보고 파국만 반대시킬공세로 맞서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내건간섭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 나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기 인민의 이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단결하여 제국주의의 침략전쟁도반패 동에 맞서싸우는것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절실히 필요한 시대적과제이다.

제국주의의 전쟁행동에서 주목되는것은 추종세력들을 규합한 연합된 세력으로 제 비위에 거슬러는 나라들을 싸러나누기처럼듯이 거슬러나누는 제끼어버리는것이다. 이를 위해 제국주의자들은 나토와 같은 침략적군사블럭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세계 여러 지역에 각이한 형태의 군사동맹들을 유지강화하려고 획책하고있다.

현시국에서 제국주의들의 침략적군사블럭화대세를 제동을 걸수 있다. 또한 그레아 반제자주,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단합된 역량으로 침략과 전쟁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에 맞서 반전, 평화옹호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제국주의의 분열외간행동을 단호히 뒷받침해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반제투쟁이 단결되어 진행되는 힘으로 저들의 야망을 무너뜨릴수 있다. 그들은 일부 나라들의 영유권문제에 끼여들어 자기에게 불공평하다는 나라를 일방적으로 지지하여 하고 한다. 《잠재적인 적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원조》를 주고 무기를 판매하면서 나라들사이의 관계에 불화를 조성하며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있다.

그러므로 평화를 수호하자면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당사자끼리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불분한 목적을 가진 제국주의자들의 간섭행동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홀어지면 패하고 모침이면 승리한다는것은 력사의 정리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사상과 리념, 계급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의 기치를 높이 반제투쟁행위를 강화하는 사업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반제투쟁적인 나라들, 평화에호력함으로써 지역나라들사이의 협조와 호소

이란의무상 마누체호르 머라기가 14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지역나라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이란은 대외활동에서 지역나라들과의 협조에 우선권을 부여하고있다고 말했다. 자기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의 모든 나라들과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대개도간섭지건설을 완공한것을 통하여 세계는 머지않아 강대국을 일떠세우겠다는 조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그것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는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렌두스》 12일부는 대개도간섭지건설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적을 모시고 게재한 글에서 올해 우리 나라에서 대개도간섭지건설의 완공이 선포되는데 대해 전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돌아본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줄어든 로고는 일단 결심한것은 무조건 실천하여온 력사이라고 할수 있다.

대개도간섭지건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이신 김일성주석의 구상이자 김정일영동지의 결심이었다.

1990년대말 당시 조선은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를 기회로 더욱 악화된 미국군대와 인민의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명을 표시하였다.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 단장 분룡 꺽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시기 나는 주체사상에 대해 많이 연구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히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봉투화하시였다. 그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하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고있다.

방글라데시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세이크 라피크 이슬람 바블루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로동당장군 65동경측 열병식을 보면서 령도자의 사상과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려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깊이 느꼈다.

조선인민은 단결의 힘을 가지고있고 있는 위대한 인민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처럼 훌륭한 인민을 키워주었다. 그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강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침략행동을 짓부시면서 힘있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을것이다. 수리아 디마스즈종합대학대표 단장 사미르 이스마일은 조선의 일심단결의 힘이 얼마나 강할지를 잘 알게 되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구현되고있는 조선에서는 날마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탄생 100돐마다 파키스탄준비위원회대표단 단장 니샤르 아흐메드 후로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며 따르는 여기에 조선의 위력한 힘의 원천이 있다.

일심단결은 조선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이고 있다. 김정일정군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에게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확신한다.

본사기자

도이칠란드 단체 우리 나라의 원칙적립장에 현대성 표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결정단 전상공개장 (1)을 지지하여 도이칠란드 프랑켄 주체사상연구소가 1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판문점에서 진행된 제 7차 조미군부대포섭실무회담에서 미군측이 우리측 제안의 타당성에 대해 인정하면서서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공개장 (1)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똑똑히 명명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민들에게 면대성을 표시한다.

로씨야대통령 일본의 영유권주장 배격

로씨야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13일 일본수상과의 회담에서 남부쿠릴 제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주장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령도문제는 로씨야에 있어서도 매우 예민한 문제라고 하면서 쿠릴 제도에는 로씨야의 령도권이 있으며 계속 그렇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일본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감정적인 발언이나 외교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말했다.

남부쿠릴 제도에 대한 문제가 일본측은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똑똑히 명명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민들에게 면대성을 표시한다.

아시아 나라들에서 에너지를 절약할것을 위한 노력

아시아 나라들이 경제발전을 다지기 위해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올 여름과 같이 최근년간 세계적으로 원유자원이 급속히 고갈되고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뛰고있고 있는 사정은 아시아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자체의 힘으로 충당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이로부터 아시아 나라들은 자체의 자원에 의거한 에너지 개발 정책 개발, 리용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말레이시아수상 다흉 스티르 토마드라 나지브 빈 폰 하지 아브둘 라자끄는 최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대용 에너지개발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힘을 들이고 2015년까지 나라의 총전력생산량의 11%에 해당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태양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기 나라를 지역에서 태양에너지를 리용한 전력생산의 중심지로 전환시킬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똑똑히 명명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민들에게 면대성을 표시한다.

미국은 인권을 옹호하고 개 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인권을 옹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자긍심과 리더십을 나타내며, 다른 나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모든 국가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모든 국가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전 세계의 관심사이다. 기업들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야 한다. 이는 기업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소비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살림집 건설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 000만㎡ 이상의 살림집을 건설하였다. 이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속한 발전을 뒷받침하고,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규탄 공격받는 미국과 이스라엘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규탄 공격을 받고 있다. 이는 두 나라의 외교 정책과 행동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다. 특히, 이스라엘의 중동 정책에 대한 비판이 심각해졌으며,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두 나라가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더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동네북신세가 된 인권후진국

동네북신세가 된 인권후진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적 권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인권 문제를 무시하고, 이는 국제사회의 규탄 공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에서 도서 《조선-1950》 출판

중국인 출판사에서 최근 도서 《조선-1950》를 출판하였다. 이 도서는 중국인들이 새 중국창건초기에 할 일이 많고 빈곤하고

이스라엘군의 폭압만행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압만행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14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헤브라, 쾨넨 등 여러 도시에 쳐들어와 수백명까지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재산 약탈하였다.

일본에서 물가 계속 올라 주민들이 생활고를 피하려고 돈을 들고 외국으로 이탈

일본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이 생활고를 피하려고 돈을 들고 외국으로 이탈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자리 축소 일본항공회사가 15일 경영 형편의 악화를 구실로 일차적 감각회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이 기업에서 250여명의 종업원들이 해고당하게 된다.

일본항공회사가 15일 경영 형편의 악화를 구실로 일차적 감감회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이 기업에서 250여명의 종업원들이 해고당하게 된다. 이는 일본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이 생활고를 피하려고 돈을 들고 외국으로 이탈

미국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이 생활고를 피하려고 돈을 들고 외국으로 이탈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